

생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새마을운동

Magazine

2026 03+04
vol.25

새벽종

새벽종

2026 03+04 vol.25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체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새마을운동의 실천

생각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에도 앞장섭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만듭니다.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xNT



CONTENTS

2026 03+04
Vol.25

새벽을

열다

- 06 새마을-ing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08 함께 만든 세상
새마을운동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 12 지구촌새마을 속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변화,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도전
- 16 초록빛 동화
봄을 여는 새마을의 발걸음
- 18 빛나는 사람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당신에게



Cover Story

탄소중립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텀블러 하나를 사용하는 습관,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선택,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도 새마을운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더 푸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일구다

- 20 우리동네 새마을 ①
대구광역시새마을회
- 24 우리동네 새마을 ②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28 청년, 새마을하다
제5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32 새마을을 만나다
한중환 충청북도 옥천군협의회장

내일을

꿈꾸다

- 36 그 노래, 그 길
서두르지 않아도 봄은 내게 와 안긴다
- 40 소통의 기술
‘함께’가 즐거워지는 대화의 기술
- 42 생활 백서
봄맞이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 44 새마을 브리핑
- 58 새마을 라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형재 사무총장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Q 새마을운동과 중앙회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장수는 바꾸기 쉽지만, 병사는 얻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힘은 리더 한사람 보다는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188만 명의 봉사자들은 재난과 위기의 순간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녹색 조끼를 입고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마치 동네 흥반장 처럼요. 이처럼 오랜 시간 쌓아온 봉사 DNA와 저력이 새마을운동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올드하디’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통과 경험을 축적해온 조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새마을운동의 강점과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마을운동은 시대 변화에 맞춰 그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잘살아 보자”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1997년 IMF 외환 위기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부 격차와 일자리 구조 변화, 공동체 약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새마을운동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경험과 사람을 중심에 둔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또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시면서 가지게 된 본인만의 신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은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협동’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할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함께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남을 돕는 일도 가능해지고, 새마을운동의 실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면’은 어느 시대에도 필요한 기본 정신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사회의 빈틈을 메우는 ‘작은 실천’의 힘을 배웠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실천하는 사람 스스로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새마을지도자들을 깊이 존중하며,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그분들의 활동을 잘 뒷받침하고 심부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중앙회의 도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는 무엇인가요?

조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를 내며 봉사하는 지도자들과 급료를 받으며 일하는 상근 직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봉사자와 상근자 간의 신뢰와 존중 속에서 협력할 때 생산적인 일이 가능합니다. 지도자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상근자는 정책과 아이디어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기반 위에서 국제연대, 마을공동체 강화, 사회적 격차 해소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Q 조직안정을 우선과제로 뽑으셨는데요. 새마을운동은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전국의 모든 회원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언제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중앙회에 직접 와서 느낀 것은 어머니처럼 조용히 들어주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거창한 요구보다 오히려 작은 지원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봉사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같은 사소해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요구들이죠. 제게 맡겨진 역할은 이런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히 살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Q 중앙회가 어떤 분위기의 조직이 되길 바라십니까?

중앙회는 지역 조직을 돕고 규칙을 세우며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권한이 한곳에 너무 집중되면 중앙회가 지역 조직을 통제하는 형태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라는 곳이 본질적으로 갖는 특성이기도 하죠. 중앙이 통제에 나서는 이유는 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스스로를 견제하고 지역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며 무엇보다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앙회도, 현장의 봉사자들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Q 총장님만의 특별한 루틴이나 취미가 있으신가요? 인간 ‘최형재’의 모습도 살짝 들려주세요.

예전에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밥맛이야”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그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처럼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고, 안 먹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늘 한결같고 꾸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뒤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새마을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몇 해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은 “공무원증은 없지만, 공무원보다 훨씬 헌신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분들께서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더군요. 재난과 어려움이 닥친 곳곳,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곳마다 늘 앞장서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한결같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역시 그에 보답하기 위해 늘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1 나무심기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새마을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나무심기, 화단조성, 산불예방 등 다양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육묘와 조림사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나무심기

1,030개소

330,710그루

19,209명 참여



화단조성

2,458개소

2,463,443송이

38,038명 참여



산불 예방 활동

1,133회

13,734명 참여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50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새마을운동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5년 기후위기 극복과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한 '녹색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살펴본다.

글 편집실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2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환경정화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화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산과 바다, 하천 등에서 진행되는 자연정화 활동은 쓰레기 수거와 오염원 제거를 통해 건강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플로깅, 마을 대청소, 벽화 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한층 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환경정화 활동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플로깅 및 마을 청소

17,144회

161,981명 참여

산, 바다, 하천 정화

2,756회

67,255명 참여

마을 미관 제고

248회

3,957명 참여





#3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실천운동

2050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누군가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가정과 마을 단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갈 때, 지속가능한 미래와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탄소 배출 저감 활동

2,620회
53,219명 참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

1,340회
24,424명 참여

탄소중립실천물품 제작 및 배포

1,209회
49,768명 참여

녹색마을가꾸기 사업

1,542회
23,550명 참여



#4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원순환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필요 없는 물건을 쉽게 버리는 소비 중심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왔지만, 이제는 버려진 자원이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찾도록 하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소중한 자원이 새롭게 쓰일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버려질 뻔한 자원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원 낭비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

10,390.7톤

농촌폐기물 수거

14,134.3톤

현웃 수집

3,068톤

아이스팩 재활용

505,107개 수거
305,384개 제공금

재활용 베품시장

314개소
1,517회
20,410명 참여



#5 함께 만드는 값이의 가치

기후위기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 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단기간의 성과에 기대기보다는, 정부·지자체·기업·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마을운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러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은 거창한 선언보다는 일상 속 작은 실천과 꾸준한 협력에서부터 시작된다.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남북 그린데탕트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	
협력기관	산림청
추진기간	2025. 3. 19.(수) ~ 5. 13.(화)
참여인원	7,329명(서울시 외 9개 시도, 92개 시군구)
주요내용	총 110,477주 식재 ※ 낙엽송(11,600), 소나무(55,892), 잣나무(18,925), 스트로브 잣나무(7,790), 산수유(2,700), 모과나무(3,920), 오미자(8,650), 돌배나무(1,000)

대한민국 새단장	
협력기관	행정안전부
추진기간	2025. 9. 11.(목) ~ 10. 14.(화)
참여인원	60,902명(시도 18개소, 시군구 222개소, 읍면동 2,150개소)
주요내용	행사 209회, 환경정화 활동 2,276회, 기타(나눔봉사, 나무심기 등) 38회, 홍보 4,242회 ※ 총 활동구간 3,389km 청소 → 634톤 쓰레기 수거

주민이 주도하는 변화,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도전

지난 2025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라는 비전 아래 지구촌새마을운동을 꾸준히 확산해왔다. 늘어나는 전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졌으며,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체계를 개선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다. 또한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GSMM)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GSLF)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SGL 회원국을 확대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글 편집실 사진 새마을운동중앙회

협력과 확산의 새로운 도약



2025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지구촌새마을운동은 협력국 확대와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9월 열린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총회에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을 새롭게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SGL 회원국은 총 5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라한 셀렉트 경주에서는 '2025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되어 국제 협력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새마을운동과의 연계 가능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제1회 장관회의 당시 30개국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회의에는 35개국이 참여해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적인 농촌 개발 모델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사회 속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 협력과 확산의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잠비아 마켓



온두라스 미니구판장

현지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새마을정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2년부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 국가의 지역을 선정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며, 주민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시설 지원이나 일회성 원조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범마을에서의 성공 사례는 다른 마을로 자연스럽게 공유·확산되어, 주민 주도형 자생마을 확산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5년 기준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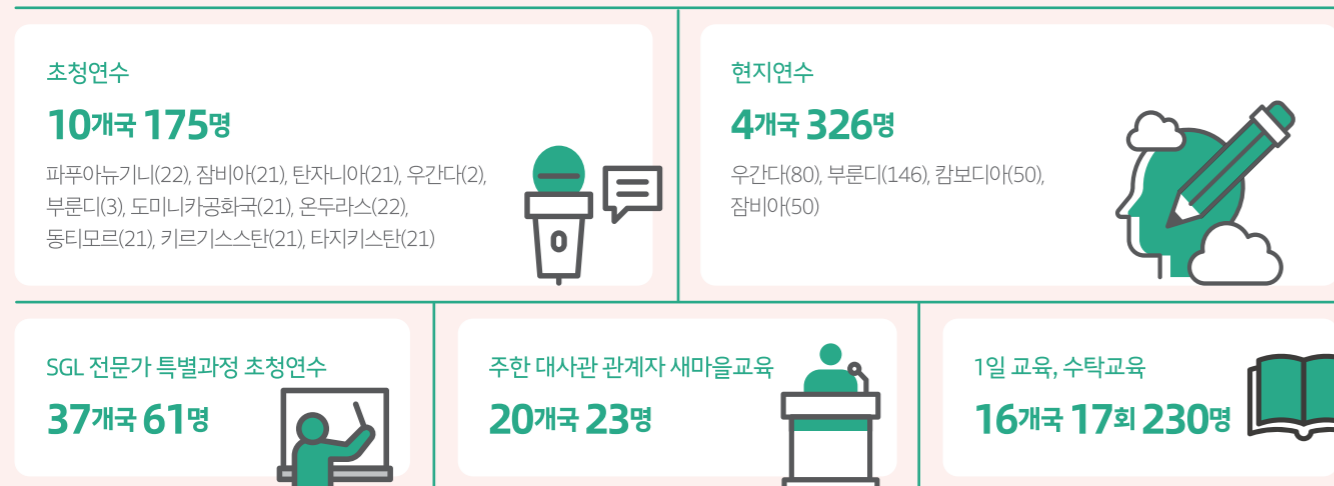
배움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빈곤과 교육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다. 배움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배움'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협력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유사한 언어·문화권 국가를 대상으로 다국가 과정을 실시하여 국가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현지 연수와 1일 수탁교육을 통해 현지 주민의 의식 제고와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2025년 기준



미래로 나아가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지역 사회의 자립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고 배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지구촌을 하나로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 2026년 새마을운동은 지구촌새마을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협력국에서 새마을운동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활동



하천 정화를 위한 EM흙공 던지기

맑은 물길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EM흙공을 힘차게 던집니다. 작은
실천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봄을 여는 새마을의 발걸음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 새마을은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따
뜻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고, 에너지를 아끼며,
일상 속 친환경 습관을 나누는 것, 그 소박하지만 소중한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림 박경인

탄소중립 나무심기

우리 손으로 심고 가꾸는 나무 한 그루는
푸른 내일을 여는 씨앗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버려진 페트병과 아이스팩을 모아
분류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손길을
더해 지구 환경을 지켜갑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당신에게

새마을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봄처럼 새마을가족은 우리 마을과 공동체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가족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봄햇살 같은, 힘이 되는 새마을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정윤하

대구 동구 지저동부녀회장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과 봉사를 늘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봉사해 주세요. 아자아자, 새마을 파이팅!



황상구

대구 남구 봉덕2동협의회장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더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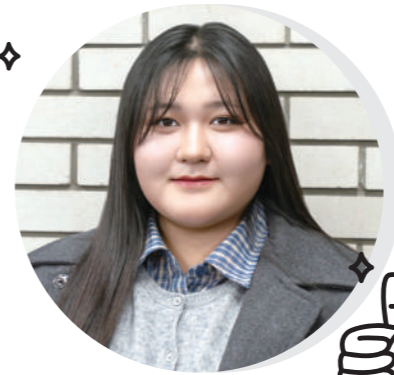
함께



김로빈

경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KIU새마을' 회장

대학새마을동아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은

순천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새순' 회장

2026년에는 더 많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습니다.



신유빈

前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2026년 5대 임원단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새마을은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새 시대, 새 미래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축자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새마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은 도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 사랑으로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빛내주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새마을, 파이팅 대새동!

합니

고성영

제주 제주시협의회장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해준 새마을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주민 쉼터를 제공하는 보람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나무심기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갑시다.



최윤철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협의회장

항상 봉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협의회가 으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한 떡국에 담긴 대구의 정(情), 세계를 향한 희망의 온기가 되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녹인 떡국 한 그릇의 온기가 대구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대구시새마을회는 대구인이란 자부심을 안고 지역 곳곳에 이웃사랑을 전파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세계 여러 국가에 자립의 씨앗을 퍼뜨리면서 희망의 역사를 쓰고 있다. 먼 길을 떠나는 마라토너처럼 대구시새마을회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 나간다.

글 윤민지 사진 손호남

시민과 함께 달리는 대구시새마을회

지난 2월 22일, '2026 대구마라톤'이 열린 대구스타디움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마라토너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찼다. 준비 운동을 하며 달릴 채비를 하는 인파 사이로, 대구시새마을회 회원들이 떡국 나눔 부스를 열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회원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대회 하루 전부터 채소와 디포리를 듬뿍 넣어 정성껏 국물을 끓이고, 떡국떡을 준비하는 등 음식 마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대구시새마을회는 지난 20여 년간 대구마라톤에서 꾸준히 먹거리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넘어, 새마을운동의 핵심인 공동체 정신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먹거리 나눔은 대구의 따뜻한 인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코스를 돌고 들어오는 피니시라인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다. 산업공구 전문기업 크레텍의 회장이자 대구시새마을회를 이끄는 최영수 회장이다. 대구의 기개를 보여주고자 직접 10.9km 코스를 완주한 최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대구마라톤은 대구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대구시새마을회도 직접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며, 대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먹거리 나눔 봉사인 만큼 최 회장은 무엇보다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신경 썼다. 또한, 봉사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역할 분담에도 공을 들였다.

"음식을 먹은 참가자들이 '힘이 난다', '대구 정말 따뜻한 도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 참가자들도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보일 때, 봉사자들은 음식뿐 아니라 대구의 마음을 전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가올 8월, 대구는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며 육상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18년, 심장 수술을 받은 지 반년 만에 주변의 만류를 뒤로하고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대회에 참여했다. 최 회장이 직접 달린 진심이 통했는지, 올해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세계인들과 함께 뛰면서 생활체육이 곧 행복한 사회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한 사회란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는 우리 새마을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라톤 참가자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모습



대구시새마을회 가족과 부비마을 어린이들

아프리카 우간다에 심은 자립의 씨앗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한 것처럼 대구시새마을회의 따뜻한 손길은 대구를 넘어 세계로 향한다. 대구마라톤대회가 매년 수많은 시민과 세계 각국의 러너들이 함께 달리는 활력과 연대의 상징이 된 것처럼 대구시새마을회의 글로벌 활동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자립하도록 돕는다. 미얀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등 새마을운동을 통해 변화를 일구는 나라도 여럿이다. 최영수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도와주는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 가치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며 나눔을 넘어선 동반 성장의 철학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새마을회는 현장과 중앙을 잇는 실행 역할을 한다. 새마을지도자, 시민,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 3년간 우간다에서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부비마을에 주민 소통의 장인 다목적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키암바지 공동체 학교의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했다. 또한, 곡식 저장 창고, 마을 마켓, 구판장 등을 갖춘 마을 커뮤니티

니티 홀을 건립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최 회장은 “주민들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마을을 가꾸는 모습을 봤다”라면서 해외 사업 현장에서 느꼈던 가슴 벅찬 감동을 잊지 못했다. 특히나 우간다 부비마을의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다. 다시 찾은 마을은 위생과 교육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의식까지 몰라보게 달라져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최 회장은 자립의 의지로 가득 찬 주민들을 보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까지 환하게 바꾸어 놓는 광경을 목격했다.

“새마을운동 하길 잘했다라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종 ‘아직도 새마을운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며 한국인으로서 느꼈던 자부심은 제 가슴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금지입니다.”

대구시새마을회가 펼친 인류애의 현장

대구시새마을회가 우간다에서 이뤄낸 변화는 배명순 아타나시아 수녀와의 운명적 만남에서 시작됐다. 2023년 대구시새마을회는 협력지였던 우간다 부비마을에 방문했다. 배명순 수녀는 최영수 회장과 회원들이 머무른 공항, 호텔까지 찾아와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자립해야 삶이 달라진다”라며 간곡히 도움을 요청

했다. 당시 대구광역시의 지원금이 줄어서 대구시새마을회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사비를 보탬고, 회원들도 뜻을 모아 우간다 오모로 지역을 협력지로 지정할 수 있었다.

비행기 대기와 환승을 포함해 35시간이 걸리는 대장정 끝에 도착한 오모로에서 목격한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다. 주민들은 동물과 함께 마시던 오염된 웅덩이 대신 대구시새마을회의 도움으로 만든 깨끗한 자연 정수 우물물을 마시며 기뻐했다.

오모로 마을의 왕로보 지역에 지은 로컬 마켓과 방앗간, 구판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협동해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다. 특히 경제라는 개념조차 없던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장부를 작성하는 ‘새마을금고’를 운영했다. 재봉틀 교실에서 기술을 배우는 모습은 마치 1950년대 한국의 희망찬 재건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간다에 빠를 뭘겠다”라는 배명순 수녀의 송고한 정신은 대구시새마을회가 나눔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대구시새마을회의 세계화 사업은 앞으로 더 널리 확장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우간다 사업을 지속하여 자립 모델을 공고히 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처음으로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대구의 정신을 세계 곳곳에 전수하며 탄소중립과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뻗어가는 희망의 여정, 대구시새마을회는 활기찬 마라토너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달려간다.



우간다 오모로지역 시멘트우물제작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최영수 회장
(크레텍 회장)

@ 마라톤 10.9km 코스를 완주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올해도 함께 뛰게 되어 참 기쁩니다. 봄의 기운 속에 달리고 나니 ‘해보자’라는 자신감이 샘솟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크레텍 직원과 가족 480여 명도 이번 대구마라톤을 함께 뛰며 위기를 이겨낼 정신을 다졌습니다. 지난 55년간의 경영 경험을 돌아켜보면 넘지 못할 위기는 없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듯, 코스를 달리고 나니 ‘새마을운동을 더 잘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 대구시새마을회 회장으로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2012년 대구시새마을회 회장에 취임한 이래, ‘현장 중심의 실천적 활동’과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지역사회 전반의 혁신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습니다. 마지막 임기를 맞은 올해는 구체적 결실을 맺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마을회의 업무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후임 회장님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새마을운동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봄바람에 실어 보내는 탄소중립의 약속, 제주의 땅에 뿌리내리는 새마을 정신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3월의 제주 바람은 아직 쌀쌀하다. 그러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들판에 연둣빛 조끼를 걸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들판은 사람들의 온기로 서서히 따뜻해졌다. 2026년 3월 10일, 제주도협의회가 주관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실천운동 나무 심기' 사업이 열린 것이다. 도지사와 지역 귀빈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150여 명과 아이들의 작은 손까지 보태어, 이날 제주의 땅에는 아기동백 1,000그루와 수국 300그루가 뿌리를 내렸다.

글 박종희 사진 이성근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제주 땅에 심는 초록빛 약속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동시에 환경 압박이 적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이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고, 분리수거 인프라도 육지에 비해 취약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아열대성 병해충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제주의 생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앞서 2월 19일에는 제주해녀박물관 일원에 제주 자생 수종인 황근 1,000그루와 동백나무 100그루가 심어졌다. 해안의 생태를 되살리고 탄소를 품을 숲을 가꾸려는 마음이 담긴 선택이었다.

제주도협의회는 이러한 흐름을 마을 현장으로 이어받았다. 탄소중립은 정부나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마을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생각이다. 나무 심기는 그 실천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이었다.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마을의 경관을 바꾸며, 주민들에게 환경에 관한 관심을 심어주는 일. 이것이 협의회가 나무 심기를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삼은 이유였다.

수종 선정에도 정성이 담겼다. 단순히 빠르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제주의 기후와 토양에 맞으면서 마을에 생기를 더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았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아기동백과 수국이었다. 아기동백은 제주의 자연환경에 잘 어우러지면서도 꽃이 피는 계절이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수종이다. 수국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한다. 변봉남 회장은 꽃이 피어날 때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끈 결의의 현장

행사 당일, 표선면 하천리 일원은 연둣빛 조끼로 물들었다. 지도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 삽을 건네고 묘목을 나눠 들었다. 힘겨운 자리엔 옆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서툰 손길엔 자연스레 누군가의 도움이 따랐다. 도지사와 지역 귀빈들도 그 뜻에 함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아우르는 150여 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표선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흙을 팠다. 쌀쌀한 봄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가 들판을 채웠다.



동백나무 심기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다. 어른들 곁에서 조그만 손으로 흙을 파고 묘목을 조심스레 잡아주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 행사가 환경 캠페인을 넘어 세대를 잇는 자리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오늘 심은 나무가 자라는 시간만큼, 마을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도 함께 자라날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의 다섯 가지 방침

제주도협의회 탄소중립 실천 운동은 나무 심기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섯 가지 실천 방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무심기에 참여한 어린이

첫째는 식목 및 녹지 조성이다. 협의회는 3월 표선면 행사에 이어 서귀포시협의회의 4월 15일 추가 식목 행사, 제주시협의회의 4·3평화공원 식목 행사도 이어간다. 매립지 공한지를 꽃동산으로 만드는 사업도 계속된다. 쓰레기가 쌓이던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변화, 그것이 협의회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이다.

둘째는 분리배출 문화 정착이다. 제주 전역 마을별로 운영 중인 재활용품 센터와 연계해 요일별 분리배출 홍보, 환경 감시 활동을 병행한다. 지도자들이 직접 마을을 돌며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잘못된 배출을 현장에서 바로잡는다.

셋째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다.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 시장 방문 시 장바구니 사용 권장 활동 등을 통해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넷째는 소하천 정비다. 소하천에 쌓인 쓰레기와 잡초가 빗물에 쓸려 바다로 흘러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풀베기 작업과 방제 활동을 펼친다. 하천이 오염되면 결국 바다가 오염된다는 생각으로, 사전 방제를 환경 보호의 기본으로 여기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다섯째는 환경 교육과 세대 연계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캠페인을 통해 어릴 때부터 자연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간다. 고령화된 마을일수록 청년 조직과 분야별 조직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변봉남 회장은 강조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젊은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조직을 다듬어가고 있다.

재난에도, 일상에도 마을을 지키는 손

제주도협의회 지도자들의 활동은 환경 사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이웃의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들도기도 하다. 급식 봉사로 혼자 힘겨운 이웃의 끼니를 챙기고, 어두워진 골목을 함께 살피며, 어려운 일엔 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협의회는 기동력이 빛을 발했다. 마스크가 부족하던 시절 키친타월로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보급하고, 직접 방역 장비를 갖춰 마을 곳곳을 기동성 있게 누볐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제주 43개 읍면동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력이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각 읍면동의 동·회장까지도 행사와 시 행사를 빠짐없이 소화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 덕분에,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발 빠르게 함께할 수 있다. 새마을 조끼를 입고 봉사에 나설 때 지도자들도,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낀다. 그 자긍심이 자발성의 원천이고, 새마을운동이 수십 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라는 것이 협의회 믿음이다.

사람이 마을이고, 마을이 미래다

나무를 심는 것은 결국 사람을 심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50여 명의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마을에서 묵묵히 터를 잡은 사람들이다. 환경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아이들과 함께 흠을 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다. 내가 사는 마을을 내 손으로 가꾸겠다는 마음, 그것이 새마을 정신의 본래 모습이다.

제주도 전역에서 묵묵히 이어져 온 그 마음들이 3월의 표선면



표선면 마을주민들과 함께 수국심기

들판에 한데 모였다. 삽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심어낸 나무들은 단순한 묘목이 아니다. 마을을 향한 애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다짐이 나무와 함께 새겨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 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제주 지역은 산과 바다, 오름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제주 전역 소하천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풀베기 활동과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버스정류장 정비사업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만들기

깨끗한 제주의 인상을 전하기 위하여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43개 읍면동협의회가 참여하며 매월 1~2회 물세척, 불법광고물 제거 등 2,160개소의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을 잇는 가교,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새마을

제5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

2026년,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더욱 유기적인 조직으로 연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5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이 선출됐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청년의 시선으로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며,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꿈꾼다. 새마을에 오늘의 감각을 더해, 즐거운 활동과 소소한 교류가 살아 숨 쉬는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이들이 그려갈 새로운 연합회의 청사진을 직접 들어봤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제5대 회장단이 그리는 새로운 새마을

Q 제5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으로 당선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태윤 회장 |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에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연합회 운영 전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회원들이 보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임채희 부회장 |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청년 세대의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된 만큼 운영 방식도 더욱 젊고 감각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요즘 세대'가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A 전윤호 부회장 | 전국을 하나로 잇는 '연결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회장단의 결속이라고 봅니다. 회장단이 먼저 하나의 팀으로 단단히 뭉쳐, 전국의 모든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Q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이태윤 회장 | 동아리 활동 중 참여했던 해외봉사를



이태윤 회장

계기로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과 이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그때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제가 느낀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매력은 '내 손으로 세상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봉사가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A 임채희 부회장 | 고등학생 시절부터 국제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사례를 자주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원조가 지닌 한계, 즉 원조 피로도나 지원 이후에도 변화가 더딘 상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주민 스스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원이 뒷받침되는 새마을운동의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국제개발 모델로서 분명한 강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A 전윤호 부회장 | 많은 20대는 새마을운동이 자신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지만, 새마을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움직이는 분들을 직접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하나의 실천 방식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 덕분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참여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면서 보람찼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A 이태윤 회장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이나 체육대회 행사 보조를 했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혹은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어울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활동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임채희 부회장



전윤호 부회장

20대가 다시 쓰는 새마을정신

Q 20대 청년들에게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인식을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A 이태윤 회장 | 아직은 생소하다는 인식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직접 참여하고 움직여, 우리가 사는 마을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운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인식을 바꿔가고 싶어요.

A 임채희 부회장 |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게 뭔데?"입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인턴을 했을 때 친구들이 "맨날 삽 들고 땅 파는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새마을운동이 여전히 과거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A 전윤호 부회장 | 저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비슷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활동하면서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경험한 이러한 변화를 더 많은 청년 세대에게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세 분이 생각하는 '새마을정신'은 무엇인가요?

A 이태윤 회장 | 저는 협동이 새마을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혼자라면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와 성장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A 임채희 부회장 | 저는 자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태도, 그것이 새마을정신이자 오늘날 청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가치라고 봐요.

A 전윤호 부회장 | 저는 새마을정신의 핵심이 협동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청년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인데,

A 임채희 부회장 | 한 달에 한 번 오전 6시, 아무도 없는 캠퍼스에서 새마을 아침 청소를 진행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피곤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청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잠이 깨며 분위기도 한층 밝아집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함과 동시에, 작은 행동으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효용감을 느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새마을다운 순간입니다.

A 전윤호 부회장 | 봉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며 느끼는 보람이 큼니다. 회장인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부회장들과 잘 따라주는 부원들을 볼 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바로 팀이고 조직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힘을 맞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보람찬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협동의 가치가 우리 세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연대

Q 올해 운영 방향이 궁금해요.

A 이태윤 회장 | 회원들이 활동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MT나 리더십 트레이닝처럼 청년 세대가 매력을 느낄 만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사를 의무가 아닌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운영 방향입니다.

A 임채희 부회장 | 올해는 동아리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가볍게 만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네트워킹 자리와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이름뿐인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A 전윤호 부회장 |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동아리 간 연결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동아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동아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수 동아리와 매칭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Q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A 이태윤 회장 |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의 이름과 개성을 기억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 그게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입니다.

A 임채희 부회장 | 어릴 때부터 품어온 국제개발이라는 꿈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며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단단히 쌓아가고 싶습니다.

A 전윤호 부회장 |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과 연대하고 교류한 이 경험이 졸업 후에도 이어져 소중한 인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대학 시절의 활동이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결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5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에 공감하며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년 굽이진 새마을의 길, 생명의 맥박을 깨우다



한종환 충청북도 옥천군협의회장

한종환 협의회장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걸어온 20여 년은 '봉사'라는 가치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시간이었다.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이웃의 빈틈을 살피며, 계절마다 필요한 손길을 보태는 일은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몸에 밴 이타심은 결정적인 순간 쓰러진 시민을 구하는 용기로 이어졌다. 그날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이어온 봉사가 한종환 협의회장의 삶 자체였기에 가능한,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

글 장희주 사진 홍승진



일상이 된 봉사, 삶이 된 새마을

시작은 거창한 사명감도, 분명한 목표도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종환 협의회장은 고향 옥천으로 돌아왔고, 방범대 활동을 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마을 행사가 열리면 일손을 보태고 공동 작업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어느새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농촌 삶 속에 함께하다 보니 새마을운동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의외로 다양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에 공감하며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며 그는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심 하나로 묵묵히 봉사의 곁에 머문 만큼 그가 남긴 발자취도 선명하다. 주민들과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아이들의 배움터인 시골 학교를 보수하는 일은 물론,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도와 고령화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중에서도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에 힘을 쏟아 생태계를 지켜낸 일은 지금까지도 가장 보람찬 일로 손꼽는다. 특히 깨끗해진 강변길과 한층 밝아진 마을 분위기를 마주할 때면 “새마을운동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자연스럽게 밀려온다.

그가 걸어온 20년의 궤적 중에서도 유독 가슴 깊이 각인된 장면이 있다. 안내면 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2018년의 어느 날이었다.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가 있다”는 면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차마 집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공간이었다.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집은 천장이 내려앉아 허리를 숙여야만 겨우 들어설 수 있었고, 내부에는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중환 협의회장은 그 모습을 본 순간, 이를 단순 일회성 봉사로 끝낼 수 없음을 직감했다.

“재료비는 최대한 아끼고 집을 고치는 일은 직접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거의 집 한 채를 새로 짓는 일과 다름없었죠. 조립식 패널로 내부를 나눠 주방과 화장실을 만들고, 정화조와 보일러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집을 수리해 드린 것뿐인데 어르신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폐쇄적으로 지내던 생활에서 벗어나 마을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대요.”

한중환 협의회장에게 이 경험은 봉사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긴 계기가 됐다. 그가 생각하는 변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이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그 마음은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의 몸에 배어 단단한 태도가 되었고, 그 태도는 결국 위기의 순간 망설임 없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수해복구활동



일손이음봉사

위기의 순간을 살린, 봉사 정신

지난 겨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그는 어느 때처럼 승객을 모시고 이동 중이었다. 그때 길가에 쓰러진 시민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유난히 추운 날씨였고, 상황은 한눈에 봐도 위급해 보였다. 그는 곧바로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세운 뒤 현장으로 달려갔다.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건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뛰어갔죠. 가까이 가 보니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남성분이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은 없었다. 다만 2년 전 새마을 월례회의 때 진행한 소방안전교육이 전부였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수없이 되뇌었던 생각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119와 영상 통화를 하며 기도를 확보하고 필사적으로 가슴을 압박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반응이 없던 몸에서 미미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이내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킱, 킱’ 하면서 기도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대보니 숨을 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이 전혀 없던 분이었는데,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서 손을 잡아드렸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죠.”

쓰러져 있던 시민이 다시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 한중환 협의회장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 일은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지만 정작 그는 담담했다. 용기의 원천을 묻는 물음에 그는 20년 간의 새마을 활동이 남긴 ‘책임감’을 꼽았다.

“새마을 협의회장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사람들 앞에 서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나서서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나서야

하잖아요. 그런 선택이 일상이 되면서, 생활 속 습관으로 몸에 밴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옥천의 새마을

한중환 협의회장에게 새마을은 지금, 이 지역에서 살아 숨 쉬며 역할을 다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가치다. 그가 이끄는 옥천군 새마을회가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마다 가장 먼저 앞서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옥천의 대표 축제인 묘목축제, 지용제(정지용 문학제), 포도축제 등 행사장 곳곳에는 늘 새마을 회원들의 땀방울이 서려 있다.

단순히 식당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루 1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 공동체를 함께 꾸러가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 그렇게 발생한 수익은 당연하게도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된다.

“농사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예요. 지난해에는 휴경지를 활용해 들깨와 배추를 심었죠. 들깨 농사는 날씨와 병충해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배추 1,500포기는 김장해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

들에게 나눠드렸어요. 또 풀을 깎아 생긴 수익금으로 마련한 풀빵 기계가 있는데 겨울이면 그걸 차에 싣고 경로당을 하나하나 돌면서 따뜻한 국화빵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계절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찾아 움직이는 것, 그게 옥천군새마을회의 새마을 정신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지만 그가 그리는 내일은 여전히 선명하다. 군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옥천군새마을회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저에게 새마을지도자는 봉사이자 책임이에요. 화려하게 앞서 나서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앞장서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한중환 협의회장은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길을 나선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자리마다 옥천의 골목골목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앞장서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봄은 내게 와 안긴다

충북 제천시

제천의 봄은 빠르지 않다. 걷는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제천은 더 큰 봄을 품에 안겨준다. 의림지의 물빛과 청풍호의 벚꽃길, 배론성지의 고요는 천천히 다가와 하루를 봄으로 가득 채운다.

글 장유정 사진 제천시청, 한국관광콘텐츠랩

노송의 그늘이 만든 물의 시간

의림지와 제림

제천은 산이 둘러싼 분지 지형 덕분에 소리가 한 겹 걸려져 들어오는 도시다. 그 조용함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 의림지가 있다.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의림지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도 눈에 물을 낸다는 것. 천 년을 훌쩍 넘긴 저수지가 박물관이 아닌 현역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 호수를 단순한 명

승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한다. 2006년 명승 제20호로 지정됐고, 제천10경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도 그 무거운 때문이다. 의림지를 감싸는 제림은 제방 위에 조성된 숲으로, 수백 년 묵은 노송이 주종을 이루고 버드나무·전나무·은행나무·벚나무 등이 함께 자라 계절마다 다른 밀도를 만든다. 봄이면 수양버들과 벚꽃이 겹치며, '수풀 림(林)' 자가 의림지의 이름에 남은 이유를 제방 숲의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과거 제방을 튼튼히 하고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심었다는 소나무들은 이제 시간이 만든 그늘을 호숫가에 길게 드리운다.

의림지의 둘레는 2km 남짓, 그런데 막상 호숫가에 발을 들이면 길지 않은 이 길이 하루의 속도를 바꾼다. 숲과 물의 기운이 맞물린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이곳은 관람 코스가 아니라 여유를 회복하는 산책에 가까운 자리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챈다. 물 위로는 바람이 먼저 스치고, 제림에서 잘게 부서진 빛이 수면으로 흘러들어 같은 풍경도 시간마다 다른 색으로 갈아입는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다음 날, 제림의 흠내가 짙어지는 순간엔 풍경이 시각을 넘어 후각까지 끌어당긴다. 솔향과 물, 그리고 흠냄새가 코끝을 지나 숨 깊은 곳까지 내려와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호수 곁에 자리한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의림지의 역사와 축조, 농경문화의 맥락을 덧대어, 방금 걸어낸 풍경을 도시가 물과 함께 살아온 시간으로 이어준다. 결국 의림지는 제천 여행의 서문이다. 제천의 여행은 꼭 채워지는 경험이 아닌 여백의 누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장 조용하고도 단정하게 보여주는 곳이 의림지다.



물에 비치는 풍경이 아름다운 의림지

artist **손빈아** music **집에 가는 길**

손빈아의 노래 '집에 가는 길' 가사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가 등장한다. 박달재는 충북 제천 구학산과 사랑산을 잇는 고개로, 박달도령과 금봉이 처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의 애절한 정서와 목소리는 박달재에 깃든 애타는 마음을 한층 선명하게 떠올리게 한다.

봄의 의림지

봄이라 꽃인지, 꽃이라 봄인가
청풍호반 케이블카

의림지의 잔잔함을 품고 청풍호로 방향을 틀면 풍경은 단숨에 대화면으로 전환된다. 호수는 내륙의 바다처럼 넓게 펼쳐지고, 산 능선은 물을 안쪽으로 접어 넣듯 둘러서며 겹겹의 운곽을 만든다. 그 겹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이는 장치가 청풍호반 케이블카다. 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오가며, 물태리역과 비봉산역 사이를 10인승 캐빈 46대가 운행해 정상까지 약 9분 만에 닿는다. 캐빈이 고도를 올릴수록 물빛은 한 톤 열어지고 산의 주름은 더 선명해진다. 정상에 닿는 순간 바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 예야 풍경이 천천히 따라오는 듯하다. 봄에는 여기에 '길'이 더해진다. 청풍호의 봄은 꽃으로 물들다 못해 길 전체가 꽃길이다. 금성면 청풍호 입구부터 청풍면 소재지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이어지는 청풍호 벚꽃

축제는 여행자의 마음까지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차로 스쳐 지나가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한 구간이라도 내려 걷는 순간 꽃길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호반도로가 벚꽃 터널로 변하는 시기에는 이동 자체가 벚꽃 나들이가 되고, 호수의 푸른빛은 봄의 색과 어우러져 계절과의 사랑에 빠지게 한다. 케이블카를 먼저 타고 위에서 내려다본 뒤 벚꽃길을 걸으면 '위에서 본 봄'과 '걸어서 만난 봄'이 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벚꽃길을 먼저 지나고 케이블카에 오르면 같은 호수가 더 넓게, 더 깊게 느껴진다. 시선의 높이가 바뀌면 감정의 결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자가 할 일은 온몸으로, 두 눈 가득 청풍호가 가져다준 봄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청풍호는 보고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한동안 마음에 머물며 계절을 되살려주는 장면으로 남는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신민선

봄의 고요가 남긴 진리
배론성지



배론성지



성요셉 신학당

울고 넘는 박달재를 소리쳐 부르며
한 잔 술에 취한 몸은 집으로 가는데
어두워진 골목 길 돌아서니 외로운 가로등 하나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니
불 꺼진 내 창가엔 달빛 내리고
옛사랑 순이가 보고싶구나
철없던 시절 내 곁을 떠난 그대
사나이 가슴에 추억을 남겨준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 손빈아, <집에 가는 길> 중에서

하루의 끝은 소리를 낮춘 고요한 곳에 두는 편이 좋다. 배론성지는 숲과 골짜기 안쪽에 자리해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보다 숨이 먼저 정리되는 쪽으로 마음이 이동한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자들이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배론으로 모여들었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촌이 형성되며 성지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곳을 대표하는 서사는 황사영 백서 토굴이다. 배론성지 자료에 따르면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은 8개월 동안 토굴에 머물며 중국 북경교구장에게 편지를 썼고, 명주천(가로 62cm·세로 40cm)에 세필로 122행 13,384자를 남겼다. 그러나 현장에서 먼저 체감되는 것은 편지의 '가치'보다 그 시간을 견딘 사람의 '호흡'이다. 순례길 안내 표지판에는 '묵묵히, 천천히, 깊게 걷는 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묵묵히 걸으며 나를 돌아보고, 천천히 걸으며 사람과 이웃을 돌아보며, 깊게 걸으며 나를 떠나고, 깊게 걸으며 나를 만나는 길.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이 보기'보다 '천천히 걷기가 더 중요해지고, 정돈된 조경과 건물의 선, 숲길의 경사가 관람의 리듬을 만든다. 사진은 필요할 만큼만 남기게 되고, 멈춰 서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진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떠난 여행의 끝에서 남는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결국 나를 돌아보고, 사람과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의림지의 물빛에서 시작된 봄은 청풍호의 하늘 아래서 한 번 더 커지고, 배론의 고요에서 잠잠해진다. 그렇게 제천의 물, 바람, 꽃은 하루치 위로가 되어 마음에 포개진다. 제천은 이렇게 봄의 사랑을 조용히 내어준다.

새벽중 퀴즈

한국 천주교 박해 시기에 많은 신앙의 역사가 남아 있는 충북 제천의 성지는 어디일까요?

- ① 명동성당 ② 강경성지 ③ 배론성지



QR코드를 스캔한 후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가 즐거워지는 대화의 기술

정중히 부탁하고, 부드럽게 거절하기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도, 정중히 거절하는 일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부탁이 행여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거절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사실 부탁은 상대를 믿기에 건네는 말이고, 거절은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는 답이다. 결국 기본 좋은 소통은 화려한 말솜씨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꽃 피는 봄, 새마을 공동체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줄 다정한 대화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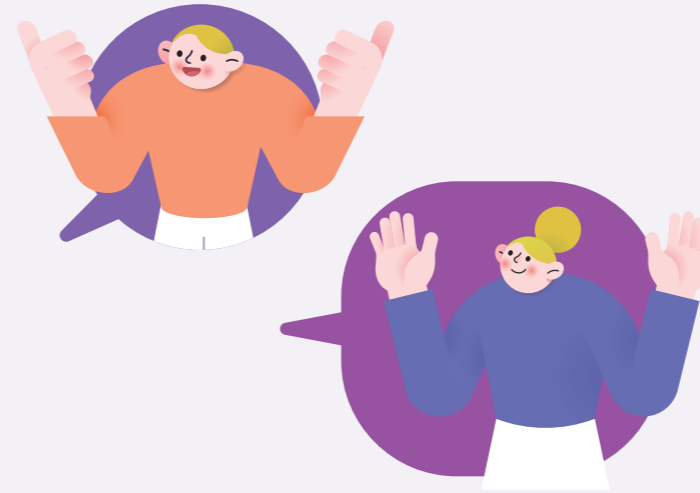
글 김채은

[혹시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고 있을까?]

가볍게 점검해 보는 관계 습관 체크리스트

- 누군가 부탁하면 바쁘거나 힘들어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 거절한 뒤에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을까 계속 마음이 쓰인다.
- 내 기분보다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먼저 살핀다.
-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적당히 넘기는 편이다.
-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된다.
-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이유가 궁금하다.
- 하기 싫은 일도 “그냥 내가 하지 뭐”하고 떠안는다.
- 나를 위한 시간보다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더 많다.
- 부탁을 거절하면 괜히 미안해진다.
-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문제 삼지 않고 넘긴 적이 있다.
- 항상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쓴다.

※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참고용일 뿐 전문적인 심리 검사는 아닙니다.



부탁에도 정중한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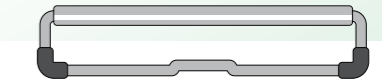
부탁은 하기 싫은 일을 미루는 핑계가 아니라, 혼자보다 함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때 건네는 말이다. 그러나 앞뒤 설명 없이 결과만 툭 던지면 부탁은 어느새 지시처럼 들리기 쉽다. 지금 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힘을 보태주면 좋을지 분명하게 설명해 보자. ‘이 부분은 네 경험이 필요해서’처럼 구체적인 이유가 담길 때 부탁은 부담이 아니라 기분 좋은 제안이 된다. 부탁을 잘하는 방법은 말을 꾸미는 데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먼저 전하는 작은 차이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꾼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다

거절은 늘 조심스럽다.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망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일단 수락하거나 답을 미루며 시간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무리해서 떠안은 일은 결국 일정에 부담을 주고, 뒤늦은 사과나 설명을 덧붙이게 만든다. 부드러운 거절에도 요령은 있다. 먼저 감정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기 싫다는 표현 대신 현재의 일정과 여건을 구체적으로 전하면 거절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여력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답을 미루지 않는 태도다. 애매한 대답은 상대의 판단만 늦출 뿐이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선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더 깊고 편안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다.

솔직한 대화가 팀워크를 완성한다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협업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일을 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업무가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도 찾아온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을’ 요청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다. 부탁과 거절이 어색해지는 이유는 말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탁에는 이유를 분명히 덧붙이고, 거절에는 현재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팀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은 무조건적인 희생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부탁과 거절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분위기와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상황을 분명히 전하는 연습, 그 작은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하고 오래 이어진다.



+ 함께 확인해 보아요 +

0~3개 선긋기 만렙

부탁을 들어줄 때와 거절할 때를 비교적 잘 구분하는 편이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이 무리하지 않도록 ‘건강한 선’을 지킨다. 지금까지 남의 눈치보다 내 상태를 먼저 살피는 좋은 습관을 잃지 말자.

4~7개 마음 약한 거절 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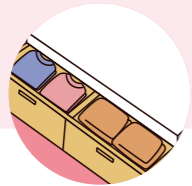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만큼 내 감정은 뒤로 미뤄질 때가 많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부터 내려놓아 보자. “이번엔 좀 어려워요”라는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8~11개 거절이 제일 어려운 착한 사람

남의 부탁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내 마음은 말하지 못한 채 쌓여간다. 혹시 ‘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이다.

봄맞이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집안 정리 노하우



봄은 집 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겨우내 쌓인 먼지와 묵은 짐을 정리하면 마음까지 새로워지고, 새해를 맞는 기분 전환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조금만 해도 금세 지치기 쉽다. 봄맞이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환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조금씩 비우고 정리하면서 공간과 함께 기분도 가볍게 바꿔보자.

글 편집실



시작은 우선순위 정하기

마음을 정갈히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 정리만 한 것이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묵혀온 짐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조차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즉흥적으로, 무작정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어느 곳을 어떻게 정리 할지 순서를 정하자. 가장 정리가 시급한 곳의 순서 혹은 정리가 쉬운 순서 등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만들어놓고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좋다.

또 하루에 집 전체를 끝내려 하기보다는 공간을 나누거나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다. 책상, 옷장, 침실 등 조금씩 공간의 규모를 키워가며 제대로 정리해가면 마음의 부담도 적고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의 옷을 한곳에 모아 정리하거나 책을 전부 꺼내 점검하며 정리하는 등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방식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양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좋다. 정리는 속도전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한 장기전이다. 무리하게 온 집안을 전부 정리하려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실행해 정리를 모두 끝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버릴지 저걸 버릴지 고민 고민하지마

정리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순간은 “이걸 버려도 될까?”하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다. 특히 높은 값을 주고 구입한 물건이거나, 물건에 나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경우라면 더욱 버리기를 망설이게 된다. 정리를 시작하면 집안 곳곳에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다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혹은 우려 속에 방치된 물건이 발견된다.

물건을 버려도 될지 고민될 때는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최근 1년 안에 이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나?”, “이 물건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만약 이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돈을 주고 살 것인가?”, “이 물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 이 질문 중 3개 이상 ‘아니오’라는 답이 나왔다면 그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물건을 버리기가 망설여진다면 보류상자를 활용해보자. 날짜를 적은 보류상자에 버리기 고민되는 물건을 담는다. 그리고 만약 3~6개월 동안 한 번도 물건을 꺼내지 않으면 그때 정리하는 것이다. 보류상자를 이용하면 정리하면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정리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다.



버리는 기술 대신 잘 남기는 힘 기르기

집안을 정리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버릴까를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리는 단순히 집안을 치우고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버려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생활방식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서 애써 공간을 만들어놓고도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은 새로 사들인 물건들이 다시 집안 곳곳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는 잘 버리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올봄에는 책상 서랍부터 아니면 옷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해보자.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공간을 비우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집안 정리 노하우! ●

실천하기



- 정리를 시작하기 전 기준 세우기
- 공간을 나누거나,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기

보류상자 활용하기

- 버릴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날짜를 적은 보류상자에 담기
- 3~6개월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바로 버리기

필요한 것만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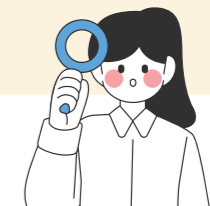


- 정리는 버리는 기술이 아닌 남기는 힘
- 정리에서 끝내지 말고 나의 생활습관을 점검하기

질문하며 버리기

다음 질문 중 ‘아니오’가 3개 이상이라면 과감히 버리기

- 최근 1년 안에 이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나?
- 이 물건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가?
- 만약 이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돈을 주고 살 것인가?
- 이 물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



새마을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내방

지난 2월 24일,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이 중앙회를 찾아 김광림 회장과 새마을운동기록물 관리와 보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1970~1979년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2011년 국가지정기록물 및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국가기록원과 협력을 강화해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총회 개최

중앙회는 2월 26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김광림 회장은 “2026년을 새마을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녹색 새마을, 시 기반의 미래형 혁신, 상생과 통합의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회장단 정책연찬

중앙회는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3차에 걸쳐 2026년도 전국회장단 정책연찬을 개최했다. 1박 2일 동안 새마을운동 핵심 방향에 대한 김광림 중앙회장의 기초강연과 시도·시군구 및 회원단체별 대화의 시간,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책연찬을 통해 전국회장단은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향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마을협력관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3월 17일, 2026 새마을협력관 초청 새마을교육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지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짐바브웨를 포함해 10개국 16명의 새마을협력관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입교식에서는 2025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적인 기여를 한 협력관 4명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내일을 꿈꾸다

새마을브리핑

사도지부 소식

서울

2026 정기총회 개최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연포)는 2월 5일 서울시새마을회관에서 2026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2025년도 실적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결 등이 진행됐다. 김연포 회장은 “지난해는 우리 조직에 청년이 더해진 새로운 조합이 완성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새마을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사무직원 직무교육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2월 25일 부산시새마을회관 강당에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무직원의 역할과 2026년 부산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백옥자 회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새마을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2026 대구마라톤대회 먹거리부스 운영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형수)는 2월 22일 열린 '2026 대구마라톤대회'에서 참가 선수와 시민들을 위해 약 2만 인분의 떡국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정성껏 준비한 떡국은 대회 현장에 온기를 더하며 완주를 향해 달린 선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도 배식과 운영 지원에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구시새마을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

2026 신년 인사회 개최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1월 5일 인천시새마을회관에서 시군구 회장단 및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인천시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항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공동체 회복과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더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형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추진위 개최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광주형 해외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0일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비롯하여 예산 규모, 세부 사업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 특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설 명절맞이 온기나눔 활동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2월 1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설 명절맞이 온기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떡국떡, 햇반, 라면, 즉석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는 각 구별 소외 가정 20세대씩, 총 100세대에 전달됐다. 박영복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져 대전 시민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6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눔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 정기총회 개최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2026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 및 결산심의, 그리고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거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22개 분야 65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대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봉사활동을 펼친 새마을가족의 노고를 격려하며 녹색·건강·문화 새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희망찬 새해맞이 만복기원 음식 나눔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1월 1일 7개 읍·면에서 '따뜻한 떡국떡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150여 명의 봉사자들은 각 지역 해맞이 명소에서 시민과 방문객 1,000여 명에게 떡국떡과 어묵, 따뜻한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해당 사업은 매년 2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2026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2월 5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3강의실에서 2026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활동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2026 정기총회 개최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2월 24일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새마을운동 추진 및 새마을회관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홍순선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배가 및 녹색, 건강, 문화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6 도민과 함께 뛰는 충청북도새마을회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1월 12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 새해맞이 국민운동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국민운동단체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2026년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2월 10일 홍성 신사옥에서 개관식을 열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을 선언했다. 김태홍 도지사와 최형재 중앙회 사무총장, 도내 15개 시·군 회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회관 개정을 축하했다. 성낙구 회장은 새 회관을 청년·여성 지도자 육성, 국제협력 강화 등 충남형 새마을운동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된 회관은 교육·회의·행정 기능을 강화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2026 전라북도새마을회·청년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2월 20일 전주 고공단에서 2026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상수 회장은 “2026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조영훈)는 2월 25일 2026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청년이 앞장서는 실천 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사회에 밝은 에너지를 확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설맞이 문화나눔

직장·공장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정은미)는 2월 10일 경일대학교 국제관에서 '설맞이 문화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 50명과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직장·공장 경상북도협의회는 앞으로도 참여 인원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유학생 대상 전통문화 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DA 플랫폼 설명회 참여

제주도협의회(회장 변봉남)는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디지털센터에서 도협의회 운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DA(Digital Agriculture) 설명회'에 참여하였다. 제주DA는 작물 재배 현황, 실시간 작황, 병해충 예찰 정보, 지역별 재해 규모 같은 농업 데이터를 수집·정제해 농민을 비롯한 농업계 전반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26 정기총회 개최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2월 4일 이북5도청 회의실에서 2026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해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성원 회장은 “지난 한 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2026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북도민 사회의 화합에 기여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군 사무직원 직무교육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2월 23일 도회 회의실에서 '2026 사무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군 사무국장 및 지도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 정기총회 개최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직무대행 최만환)는 2월 25일, 창원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2026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2026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받았다. 또한 올해 중점사업으로 녹색·건강·문화마을 조성 및 청년새마을조직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선정하고, 50여 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매거진 '새벽중'과 함께하는 순간,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로 문의하세요.

031-620-2372, 2381

새마을운동 중앙회
새벽중
광고주 모집



#전통 된장 담그기 #이웃공동체
#행복1%나눔

서울 강서구새마을회 전통 된장 담그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계승
- 된장 담그기 체험 기회 마련

어떻게 했나요?

- 메주 100개를 항아리에 담아 전통 방식으로 장 담그기
- 관내 취약계층 대상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Point

- 작지만 깊은 온기로 지역사회 희망 전파
- 행복1% 후원 사업 연계 추진



#행복1% #자장면
#나눔봉사

서울 구로구새마을회 행복 1% 추억의 자장면 무료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소외계층 대상 추억의 자장면 무료 나눔을 통해 행복 1% 이웃공동체 운동 실천

어떻게 했나요?

- 동주민센터와 협업해 분기별 150명 선정 후 쿠폰 배부
-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동협의회장들의 식자재 후원
- 의용소방대와 함께 연대 봉사

Point

- 기부와 후원이 어우러진 참여형 나눔 사업
- 추억과 정성을 담은 한 그릇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 유관기관-지역단체 협업을 통해 새마을운동 가치 확산



#수제오란다 #새마을돌봄
#은기나눔

부산 중구새마을회 사랑의 오란다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정성 가득 수제 오란대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 돌봄 대상자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및 나눔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지도자들이 재료 준비부터 조리·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
- 관내 새마을돌봄 대상 100세대에게 방문 전달

Point

- 달콤한 간식 전달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과 촘촘한 돌봄 강화



#친환경EM #비누만들기
#탄소중립마을

부산 사하구새마을회 친환경 EM 교육 및 강사 양성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EM 교육 실시
-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이끌어갈 신규 강사 양성

어떻게 했나요?

- EM 발효액 및 친환경 비누 만들기 실습 교육
- 신인동 회장 중심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Point

- 학생-지역주민-다문화가정-대학생-청년층까지 교육 대상 확대 추진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찾아가는족욕봉사 #어르신건강돌봄
#새마을공동체

대구 군위군새마을회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족욕봉사

무슨 일을 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 족욕봉사 실시

어떻게 했나요?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족욕과 발 마사지 서비스 제공
-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나누며, 말벗 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감과 소통

Point

- 연말연시 따뜻한 돌봄 실천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
- 작은 손길로 지역사회에 큰 감동 전파



#주민화합 #이웃사랑실천
#지역공동체활성화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 병오년 새해 해맞이 떡국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새해를 맞아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
- 나눔과 봉사 실천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어떻게 했나요?

- 떡국 700인분을 나누고 새해 소망지 작성 이벤트로 주민 화합의 장 마련
- 새마을지도자 110명이 참여하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지원

Point

- 함께 여는 희망, 소망은 나누고 정은 더하는 새해 아침
- 주민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결속력 증대
- 희망 메시지 공유를 통한 밝고 긍정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



#금당산새해맞이 #2천명희망나눔
#가마솥떡국

광주 서구새마을회 금당산 새해맞이 떡국·차(茶)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구민 2,000명에게 따뜻한 떡국과 차(茶)를 대접하며 새해 첫 희망 나눔
-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공동체 결속 및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

어떻게 했나요?

- 행사 7일 전부터 식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육수를 우려내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함
- 새벽부터 장작불에 가마솥을 올려 전통 방식으로 조리한 떡국과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눔

Point

- 금당산을 찾은 구민에게 희망 나눔 실천
- 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음식과 차를 나누며 온기 전달



#설명절맞이 #사랑나눔
#MZ새마을

대전 서구새마을회 설 명절맞이 사랑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설 명절을 맞아 요양원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 실시
- 간식 전달과 함께 손·발 마사지 및 족욕 서비스 제공

어떻게 했나요?

- 대전서구혁신청년새마을연대와 K-뷰티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엄색 및 커트 봉사 진행
- 대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동아리원들이 간식 나눔과 손·발 마사지, 족욕 봉사에 참여

Point

- 설 명절을 맞이하여 MZ청년조직과 함께 온기 나눔 실천
- 이미용과 돌봄 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
- 지역 방송(TJB 생방송 투데이) 방영



#정성가득한식사 #이웃사랑실천
#함께하는공동체

울산 남구새마을회 정성으로 차린 따뜻한 한 끼, 마음을 잇다

무슨 일을 했나요?

- 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전개
- 온기를 전하는 식사 나눔으로 공동체 사랑 실천

어떻게 했나요?

- 도산노인복지관에서 부녀회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 식사 조리와 배식 진행
- 정성 가득 손길로 따뜻하고 영양만점 식사 전달

Point

- 단순한 배식 활동이 아닌 마음까지 나누는 정성 봉사
- 나눔 문화 확산 및 지역 사회와 함께 이웃 돌봄 실천



#지구촌협력사업 #캄보디아
#의류나눔

경기 시흥시새마을회 캄보디아 의류 후원

무슨 일을 했나요?

- 캄보디아에 의류 1,351장 나눔

어떻게 했나요?

- 지구촌 협력사업으로 캄보디아 캄땡스프 지역주민과 아동에게 의류 전달

Point

- 지구촌새마을운동 후원과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선도



#함께새마을 #해맞이
#급수봉사활동

경기 오산시새마을회 새해맞이 급수 봉사

무슨 일을 했나요?

- 새해맞이 급수 봉사활동

어떻게 했나요?

- 이른 새벽부터 독산성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한방쌍화차와 따뜻한 음료 나눔
- 서로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새해 인사 전달

Point

- 살기 좋은 이웃 만들기 실천



#태극기나눔 #태극기게양홍보
#새마을운동

강원 춘천시지회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무슨 일을 했나요?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전개
- 관내 40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 3,000개 나눔

어떻게 했나요?

- 지도자 70여 명과 함께 3.1절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전달하고 올바른 게양 방법을 안내

Point

- 지도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태극기 달기를 적극 홍보
- 태극기 나눔을 통해 나라사랑 실천



#fun한 new 봉사 #이웃과 함께하는 설명절
#새마을공동체

강원 평창군새마을회 fun fun한 new 설 명절 함께 즐기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재현하여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
- 추억의 과자를 나누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설 명절 행사 진행

어떻게 했나요?

- 견과류와 콩 등으로 재미와 추억을 담은 과자 만들기
- 용평면 15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과자 만들기로 마을 명절 분위기 더하기
- 어르신들과 함께 율놀이 진행

Point

- 전통 한과를 현대식 퓨전 과자로 재해석
- 회원 간 봉사의 즐거움을 나누며 화합 및 사기 진작 계기 마련



#이웃공동체 #온기나눔
#전통계승

충북 보은군새마을회 전통을 품고, 이웃을 품는 동지팍죽 사랑의 손길

무슨 일을 했나요?

- 정성과 온기를 담은 팍죽 나눔으로 이웃공동체 실천
-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문화 계승

어떻게 했나요?

- 우리 고유 절기인 동지를 맞아 새마을지도자들이 정성껏 만든 팍죽을 각 마을 어르신들께 전달

Point

-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
-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겨울 만들기



#어르신 건강증진 #새마을지도자천안시부녀회
#치매예방교육

충남 천안시새마을회 찾아가는 힐링캠프

무슨 일을 했나요?

-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 힐링캠프 운영

어떻게 했나요?

- 부녀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스트레칭, 손 운동 등 인지 강화 활동을 진행
- 정기적으로 경로당 순회 봉사활동 추진

Point

- 어르신 삶의 질 향상 기여
- 지속적인 지역 돌봄 활동 전개



#설맞이 대청소 #구슬땀
#취약계층 지원

충남 태안군지회 설맞이 대청소 '구슬땀' 및 나눔 행렬

무슨 일을 했나요?

- 설 명절을 앞두고 설맞이 대청소 실시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및 물품 기탁

어떻게 했나요?

- 지도자 100여 명이 참여해 국도 77호선 및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진행
- 지역 주민들의 성금과 물품을 모아 취약계층에 전달

Point

- 깨끗한 귀성길 조성
- 따뜻한 나눔 확산



#폐농약병수거 #농촌환경정비
#탄소중립실천

전북 김제시새마을회 흙 살리기- 폐농약병 수거 사업

무슨 일을 했나요?

- 연 2회 폐농약병 수거 사업 추진
- 방치되기 쉬운 폐농약병을 수거하여 토양·수질 오염 사전 예방

어떻게 했나요?

- 각 읍·면·동별 폐농약병 집중 수거 및 선별 작업 실시
- 수거 물량을 지정 장소에 집하 후, 환경공단에 인계하여 안전 처리

Point

- 농촌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농경지 및 생활권 주변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건강새마을운동 #정이넘치는마을
#어르신건강지킴이

전북 고창군지회 건강새마을운동- 마을어르신 건강 지키미

무슨 일을 했나요?

- 가족과 마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봉사
- 어르신을 섬기는 공경의 마음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땀' 봉사활동 추진
- 일상 속 동네 어르신을 공경하는 새마을 경(敬) 사상 실천

Point

- 지속 가능한 건강새마을운동 모델 정착
- 함께 행동하며 나와 이웃,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작지만 큰 동행' 실현



#청년새마을연대 #온기나눔 #이웃사랑

전남 보성군새마을회 청년들이 전하는 온기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설맞이 5일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군고구마와 따뜻한 차 나눔
-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 홍보 활동

어떻게 했나요?

- 청년연대 회원들이 새벽부터 녹차골보성향토시장을 방문한 군민 약 500여 명에게 군고구마와 차 나눔 활동 진행

Point

- 온기나눔 활동을 통한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 홍보 및 인식 제고



#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집고쳐주기 #따뜻한봉사

전남 진도군새마을회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무슨 일을 했나요?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봉사 진행
-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어떻게 했나요?

- 도배·장판 교체, 생활 불편 요소 등 주민 맞춤형 집수리 지원
- 5년째 이어진 '집 고쳐 주기' 공모 사업 지속 추진

Point

-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연대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 현장 중심의 나눔과 연대 실천으로 이웃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떡국떡나눔 #이웃사랑실천 #따뜻한공동체

경북 청도군새마을회 사랑의 떡국떡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情) 나눔
- 이웃 사랑 실천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이 함께 떡국떡을 준비하고 개별 포장
- 관내 홀몸어르신, 경로당,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 확인

Point

-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며 정서적 고립감 해소
- 직접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돌봄 실천
- 새마을가족의 자발적 봉사 참여로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조성



#공동체문화조성 #좋은이웃만들기 #함께하는따뜻한울릉

경북 울릉군새마을회 울릉의 온기, 사랑의 가래떡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따뜻한 情 나누기-사랑의 가래떡 나눔' 사업 추진
- 가래떡과 소고기를 담은 떡국 꾸러미를 관내 300가구에 전달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포장부터 전달까지 직접 진행
-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전하며 따뜻한 겨울 인사 나눔

Point

- 방문 전달을 통한 정서적 교감과 촘촘한 이웃 돌봄
- 겨울철 음식 꾸러미로 실질적 도움 제공



#녹색마을 #화단조성 #예쁜하동만들기

경남 하동군지회 소소하게! 예쁘게! 매력있게! 예쁜 하동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화단 조성과 대중교통 쉼터 화분 설치로 예쁜 하동 만들기 실천

어떻게 했나요?

- 방치된 유휴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꽃모종과 나무 식재
- 화분 제작 후 꽃모종을 심어 대중교통 쉼터에 설치

Point

- 도로변 인근 방치 유휴지에 화단을 조성해 지역 환경 개선
- 군민들이 이용하는 쉼터에 화분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공동체문화조성 #좋은이웃만들기 #농번기일손돕기

경남 함양군지회 농번기 일손 돕기

무슨 일을 했나요?

- 바쁜 농번기에 이웃 농민 일손 돕기
- 양파 수확을 도우며 이웃 간 유대 강화

어떻게 했나요?

- 일손 돕기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안부를 나누고 마을 특산품을 교류

Point

- 땀 흘려 노동하고 수확의 기쁨을 공유
- 마을 간 유대감 강화와 교류의 장 마련



새벽종 독자 의견

〈새벽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 스캔

〈새벽종〉 2026년 01+02월호



<우리동네 새마을 1>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장인선



<우리동네 새마을 1>

서울 성동구 송정동새마을작은도서관의 소개 잘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찾아가고는 하는데 공간은 작지만 주민들에게 소중한 배움과 쉼의 공간으로 아끼자기하게 잘 꾸며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소통하고 배우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장소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태민



<우리동네 새마을 2>

밀양시 동명마을의 옛길이 주민들의 손길로 되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변화와 공동체의 힘이 함께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잊혀진 길이 다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마음과 마을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니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순화



<생활백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정보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잘 실천해야겠네요.

주창원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

새마을

새마을주간

2026.4.20.~26.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